

##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 연보

- 1889년 도쿄 출생. 父:해군소장 柳檜悦(やなぎな らよし), 母:카츠키(乘子)의 3남
- 1895년(6세) 學習院 초등과 입학 (1894 청일전쟁)
- 1908년(19세) 학습원 고등과 입학 (1904 러일전쟁)
- 1910년(21세) 문예잡지 『시라카바(白樺)』 발행
- 1911년(22세) 학습원 고등과 졸업,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철학과 입학,  
최초의 단행본 『科学と人生』 발행(朶山書店)
- 1913년(24세)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심리학 전공) 졸업.  
졸업 논문은 「心理学は純粹科学たり得るや」
- 1914년(25세) 2월 성악가 나카지마 가네코(中島兼子)와 결혼,  
『일리엄 블레이크』 발행(洛陽堂), 7월에 치바현 아비코로 이사
- 1915년(26세) 장남 무네미치(宗理) 출생, 이해에 최초로 조선 여행.
- 1919년(30세) 東洋大學 종교학 교수로 취임. 2월 단행본 『宗教とその眞理』 간행(叢文閣),  
잡지 『藝術』에 「석불사의 조각에 대하여」 게재  
5월 요미우리 신문에 「朝鮮人を思ふ」 게재. 『白樺の園』 간행(春陽堂)
- 1920년(31세) 「朝鮮人を思ふ」의 한국어 번역이 동아일보에 게재됨.  
『美術寫眞畫報』에 「余の知れるリーチ」 게재,  
「朝鮮民族美術館設立趣意書」 발표.
- 1921년(32세) 메이지대학 윤리학 및 영문학 강사를 거쳐 女子英學塾 윤리학 교수로 취임.  
1월 「조선민족미술관설립계획」을 발표.  
『現代33人集』에 「陶磁器の美」를 게재(新朝社),  
『宗教的奇蹟』 간행(총문각). 3월 아비코로부터 도쿄로 이사.  
5월 도쿄 神田 流逸莊에서 <조선민족미술전람회> 개최.
- 1922년(33세) 『조선의 미술』, 『조선과 그 예술』 출판.  
잡지 『改造』에 「사라져가는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를 게재.  
『도자기의 미』 간행, 잡지 『白樺』에 李朝編 특집 발행.
- 1923년(34세) 1월 처음으로 甲州에서 木喰上人(에도시대 眞言宗 승려)이 만든 木彫仏을 봄,  
東洋대학 교수 사임.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神に就いて」 게재.  
9월 도쿄 대지진 발생, 이때 큰형 황사,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가옥이 파손됨
- 1924년(35세) 메이지 대학, 女子英學塾 사임.  
4월 조선 경성부 집경당에서 <조선민족미술관>을 개설. 교토로 이사.  
교과서 『現代文學讀本』에 「도자기의 미」가 게재됨.  
8월 木喰上人의 고향 甲州 방문시 역사 자료를 발견하고 현지조사여행 기획.  
잡지 『女性』 9월호부터 7회에 걸쳐 「木食五行上人の研究」를 발표 하마다쇼지  
(浜田庄司) 영국에서 귀국, 카와이 간지로(河井寛司郎)와 의 교류가 시작됨.
- 1925년(36세) 교토 同志社대학, 関西学院 교사 취임. 3월 잡지 『木喰上人の研究』 제1호 출판.  
『木喰上人作木彫刻』, 『神と美』 출판.
- 1926년(37세) 同志社大學 영문과, 關西學院 영문과 강사 취임.  
1월 카와이 간지로, 하마다쇼지와 함께 高野山으로 여행하던 중 ‘민예’라는  
조어 탄생, <일본민예미술관> 설립을 계획. 4월 <일본민예미술관설립취의서> 발표.

- 1927년(38세) 2월 「工芸の協団に関する提案」 발표, 잡지 『大調和』에 「工芸の道」 발표.  
6월 <제1회 민예전> 개최, 『雜器の美』 발행.
- 1928년(39세) 3월 우에노 박람회 <민예관>을 출품.  
7월 조선 경성부 연경당에서 <이조도자기전> 개최. 『工芸の道』 출판.
- 1929년(40세) 同志社대학, 関西学院 강사 사임. 『雜器の美』(工政会出版部), 『工藝美論』 발행.  
『일본민예도록』 발행. 『初期大津繪』 출판. <교토 민예전> 개최.  
4월 하버드대학 강사로 미국행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을 거쳐 8월에 미국  
입국하여 <불교미술>, <미의 표준> 강의함)
- 1930년(41세) 7월 귀국. 서구기행을 각종 잡지, 신문에 기고, 발표.
- 1931년(42세) 오사카 마이니찌 신문사 학예부 객원 취임.  
월간잡지 『工藝』, 『윌리엄 브레이크와 윌터 휘트먼』 출판.
- 1932년(43세) 월간잡지 『工藝』에 이조도자 특별호 간행. 『수집에 관하여』 출판.
- 1933년(44세) 도쿄 高島屋에서 <신흥민예종합전> 개최. 교토에서 도쿄로 이사.
- 1934년(45세)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을 여행. 日本大學 예술학과 강사로 취임.  
도쿄 高島屋에서 <日本現代民藝品大展觀> 개최.  
『美と工藝』(建設社) 출판.
- 1935년(46세) 메구로구 코바마로 이사. 오사카 마이니찌신문사 학예부 객원 사임.  
『美術と工藝の話』 출판. <일본민예관> 건립에 착수.
- 1936년(47세) 하마다 쇼지, 카와이 간지로와 한반도 북부 여행. 12월 <일본민예관> 초대 관장 취임.  
『다도를 생각한다』 출판.
- 1937년(48세) 國際女子学園 강사 취임. 하마다 쇼지, 카와이 간지로와 함께 전라북도 여행.  
『미의 나라와 민예』 발행.
- 1938년(49세) 월간잡지 『工藝』에 「현재 조선의 민예」 연속 간행.  
도쿄 高島屋에서 <조선현대민예전> 개최. 오키나와 여행.
- 1939년(50세) 오키나와 여행. 수집 시작.
- 1940년(51세) 專修大学 교수로 취임. 오키나와, 북경 여행. 오키나와 공예문화전·사진전 개최.
- 1941년(52세) 민예총서의 1권 『민예란 무엇인가』 출판, <종교와 공예>전 개최.  
『茶と美』 발행, 『工藝』 출판, 민예총서 『오키나와의 문화』 간행.
- 1942년(53세) 『工藝文化』(文藝春秋社), 『공예의 미』, 『나의 염원』, 『미의 모양』,  
『설국의 蓑(도롱이)』, 『오키나와의 도기』, 『現在の日本民窯』 등 출판.
- 1943년(54세) 『日田の皿山』 출판, 대만 일주 여행 및 수집. 신판 『神と美』 간행.
- 1944년(55세) 『和紙の美』 간행.
- 1945년(56세) 전쟁이 격화되어 일본민예관 임시 폐관, 종전 후 재 개관, 큰 병에 걸림.
- 1948년(59세) 『民と美』 상·하 2권 간행.
- 1949년(60세) 『美の法門』 출판.
- 1950년(61세) 『妙好人因幡の源左』 간행.
- 1951년(62세) 잡지 『大法輪』에 「南無阿弥陀佛」 게재.
- 1952년(63세) 마이니찌 신문사 파견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유럽행.
- 1953년(64세) 「茶の病い」, 「利休と私」 기고.
- 1955년(66세) 잡지 『心』에 「奇數の美」 게재. 『南無阿弥陀佛』 출판. 제1회 茶會 개최.
- 1956년(67세) 제2회 다회 개최. 수장품을 모두 창고에 수납. 「物と法」, 「寂の美」, 「古丹波の

古陶」 게재. 「丹波古陶展」 개최, 커피로 茶會 개최, 병으로 쓰러져 입원.

1957년(68세) 병상에서 기고를 이어감. 잡지 『禪文化』에 「井戸と楽」 게재, 『無有好醜の願』 출판. 「日本の目」, 「光悦と浜田」, 「疵の美」, 「佛教美學の悲願」 게재, 『棟方志功版畫』, 『民藝四十年』 간행. '日本 文化功勞者'로 선발됨.

1959년(70세) 일본민예관에서 <古丹波展> 개최, 『心掲』 간행.

1960년(71세) 아사히 문화상 수상. 『民藝図鑑(1)』 간행, 영화 <민예와 함께한 50년> 제작, 『柳宗悦宗教選集』 간행 시작. 『美の淨土』, 『大津繪図録』 간행.

1961년(72세) 『民藝図鑑(2)』, 『法と美』, 『鉛筆筒』 간행. 5월 3일 사망.

1984년 한국에서 외국인에게는 최초로 '보관문화훈장' 추서(한국문화재 연구와 보존에 기여한 공로)